

이스트스프링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코드: 43707]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등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율변동위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KBP국고채 0~10년 70% + KBP특수채 0~10년 20% + KBP은행채AAA이상 0~5년 10%) 90% + KBP Call 지수 1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채, 공사채 및 통안채 등 각 채권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자산배분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금리의 변동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u>듀레이션*</u>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와 공사채 및 통안채와 국채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자산배분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펀드의 목표 <u>듀레이션*</u>을 결정한 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종류와 개별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채권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이자를 더 높은 금리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 <u>듀레이션(Duration)</u> 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 로서, 금리가 변동하는 데에 따른 채권 가격의 위험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임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없음	0.6500%	0.43%	0.38%	68	138	211	368	82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A-E, C-E)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2.01 ~ 21.01.31	19.02.01 ~ 21.01.31	18.02.01 ~ 21.01.31	16.02.01 ~ 21.01.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2007/02/28	1.04	1.82	2.43	1.69	3.15
비교지수(%)		1.50	2.34	2.94	2.21	3.69
수익률 변동성(%)		1.37	1.43	1.26	1.06	1.06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주1) 현행비교지수 : (KBP국고채 0~10년 70% + KBP특수채 0~10년 20% + KBP은행채AAA이상 0~5년 10%) 90% + KBP Call 지수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펀드의 비교지수는 설정일로부터 2011.11.30까지 KIS통안채종합지수 0~1년 20% + KIS통안채종합지수 1~2년 20% + KIS국고채종합지수 2~3년 40% + KIS국고채종합지수 3~5년 20%를, 2011.12.01부터 2014.01.19까지 매경BP지수 국고채 1~3년 55% + 특수채 1~3년 15% + 통안채 1~2년 20% + Call 10%를, 2014.01.20부터 2017.01.01까지 (KBP국고채0~3년80%+KBP국고채3~5년20%)*90%+콜10%를, 2017.01.02부터 2018.05.20까지 (KBP국고채 0~3년 52% + KBP국고채 3~5년 18% + KBP 특수채 0~3년 30%) 90% + 콜 10%를, 2018.05.21부터 현재까지 KBP국고채 0~10년 70% + KBP특수채 0~10년 20% + KBP은행채AAA이상 0~5년 10% + KBP call 지수 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세은	1986	책임 (차장)	7개	14,972억원	-	-	1.74%	2.55%	7년 3개월
한희진	1968	부책임 (상무)	13개	9,520억	1.79%	-	1.74%	2.55%	17년 3개월

운용전문 인력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자율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대표번호: 02-2126-35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eastspring.com/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1.03.19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p> <p>· 온라인형(A-E, C-E)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p>	
	판매경로	오프라인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기타	무권유저비용(G)	<p>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개인연금(P2)	<p>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퇴직연금(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펀드, 전문투자자 등(F)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 2 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